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Korean and Japanese Women's Traditional Costumes from a Viewpoint of Oriental Aesthetics

Lee, Jin-Min* · Kim, Min-Ja

Seoul Women's University* · Seoul National University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dress, that is an examination of the basis of aesthetic phenomenon expressed in dress requires the aesthetic consideration. Dress is the representation of human and culture spirit. And the cultural spirit making the nature of culture is the synthesis of all the times and ideas and it is the reflection of the cultural characteristics and aesthetic sens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stablish the theoretical view for the analysis of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dress from the viewpoint of oriental aesthetics. Also, this study intended to examine the universality and particularity of aesthetic characteristics in Korean and Japanese women's traditional costumes. The importance of this study is to extend the range of the objective thinking on Korea's unique aesthetic value and ultimately to contribute to the study on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oriental dress styles corresponding to western aesthetic valu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To establish the theoretical view for the aesthetic analysis of dress from the viewpoint of oriental aesthetics,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ternal spirit of human & culture and the external form of dress formation. Based on this consideration, the viewpoints for the analysis of dress formation were classified 'the form' as the basic structure of the external formation of dress and 'the ornamentation' as the emphasis of the artistic characteristics of dress.

The common world view shared by Korea and Japan holds the thinking system that everything

is created from 'not to be(無)' to 'being(有)'. This view emphasizes the totality and circulation of energy called 'Ki(氣)'. According to this view, oriental culture has been developed by intuition and pleasure called 'Heung(興)'. Therefore, 'the form' of the oriental culture included ambiguity and emphasized the total harmony. These characteristics appeared in dress as the design of ambiguity, asymmetry and concealment. The meaning of 'the ornamentation' in oriental world was the unified harmony of diversity and the colors and patterns of oriental dress were used by the symbolic meaning of 'Yin-Yang&Wu-Shing(陰陽/五行)'s principl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the form' and 'the ornamentation' of oriental dress affected the common formative basis of Korean and Japanese costumes. Accordingly, Korean and Japanese women's traditional costumes shared the characteristics of form and ornamentation.

On the basis of the world view of the 'Ki', Korean and Japanese women's traditional costumes commonly shared the aesthetic values of concealment, emptiness, and symbolism. Also, their costumes expressed the difference, especially in 'the ornamentation'. Korean costume expressed 'the beauty of simplicity and naivety', and Japanese costume expressed 'the beauty of ornamentation and non-ornamentation.'

동양 미학적 관점에 의한 한·일 여성 전통 복식의 미적 특성 고찰

이진민* · 김민자

서울여자대학교* · 서울대학교

복식의 미적 특성, 곧 복식을 통해 표현된 미적 현상의 근거와 본질, 의의에 대한 규명은 인간의 삶의 미적 현상과 관련된 본질이나 법칙을 밝혀내고자 하는 미학적 측면에서의 고찰을 필요로 한다. 특히 복식은 인간의 정신적 세계를 통해 확립된 표상으로서, 문화의 정신적 기질이 세계관 속에 외화(外化)되어 나타난 것이라 볼 수 있으며, 문화의 본질을 형성하는 정신적 기질, 곧 문화 정신은 하나의 문화에 담긴 모든 시대, 모든 사상의 총화로서 그 문화의 특징 및 조형 의지를 분명하게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본 연구는 한, 일 복식이 속한 동양 문화의 정신적 기질에 대한 객관적 접근, 곧 동양 미학적 관점에서 복식의 미적 특성 분석을 위한 이론적 시각의 정립을 시도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한, 일 여성 전통 복식의 미적 특성을 비교, 고찰함으로써 그 보편성과 특수성을 규명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한국과 일본의 전통 복식은 공통된 동양 문화권의 범주 내에서 보편적 미적 특성을 공유하는 동시에 한국과 일본이라는 서로 다른 하위문화 범주로서의 차별성이 존재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 일 복식 문화에 대한 재인식은 물론 우리 고유의 미적 가치에 대한 객관적 사유의 폭을 넓히는데 의의가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서구적 가치에 대응하는 동양 복식 양식의 미적 특성을 규명하는 제연구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복식의 미적 특성 분석을 위한 동양 미학적 관점에서의 이론적 정립을 위하여, 인간과 문화의 정신적 측면 및 물질적 외관으로서의 복식 조형과의 관계에 대한 논의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복식의 외적 조형을 형성하는 기본 구조인 ‘형식’과 그러한 형식에 부가

되어 복식의 예술적 특성을 강조하는 ‘장식성’의 두 측면으로 기본적 시각을 정리하였다.

한국과 일본이 공통적으로 견지하는 동양적 사유체계는 ‘무’에서 ‘유’로 나아가는 세계관을 지닌다. 이에 따라 기가 만물로 변화하는 공능의 운행을 중요시하고, 직관과 흥에 의한 문화의 전개가 이루어져 왔으며, 그 구체적 운용원리로 음양오행의 원리가 작용되어 왔다. 따라서 동양문화의 전반적인 형식구조는 모호한 특징을 내포하며, 총체적 조화를 우선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복식에서 모호성, 비균제성, 숨김의 형식적 특성으로 나타났고, 총체적 외관과 전체 강조, 전개형의 의복 발달, 비균제와 비구조적 디자인 등으로 구체화되었다.

복식의 장식성과 관련하여, 동양에서 장식의 의미는 다양성이 통일된 조화로서, 음양오행에 따른 만물의 배합 및 예(禮)에 의한 규정이 이루어지며, 이는 복식에서 음양오행에 근거한 색채와 문양의 상징적 운용으로 구체화되었다.

이와 같은 동양 복식의 형식과 장식적 특성은 한국과 일본 전통복식의 공통된 조형적 기반으로 작용하였으며, 한, 일 여성 전통복식은 전개형의 기본 구조 위에 평면적, 비구조적 형식 및 비대칭과 비균제의 형식적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 장식적인 측면에서는, 음양 오행사상에 근거한 색채 사용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구체적인 선호 색 및 배색 경향, 문양의 표현 기법 등에서 민족적 차원의 차별적 조형감각을 표출하고 있다.

한, 일 여성 전통복식의 미적 가치에 있어서는, 동양적 기의 우주관을 바탕으로 감춤과 비움, 상징의 미학을 보편적 가치로 공유하고 있으며, 장식적인 측면에서 한국의 소박미와 일본의 꾸밈과 반 꾸밈의 미로 대표되는 차별성을 내포하고 있음이 고찰되었다.